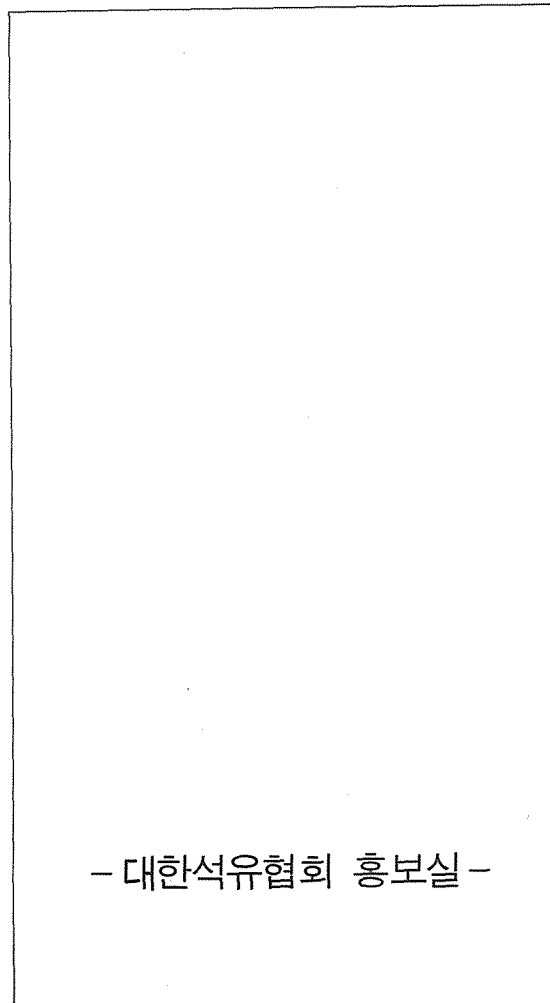


I. OPEC에 대한 協調度

석유전문가들은 최근의 OPEC가 國際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주요원인은 이란 및 이라크의 정치적不和가 OPEC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란·이라크휴전과 OPEC 事情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이·이戰爭동안 이란에는, 석유가격 하락에 따른 石油收入 감소분을 원유增産으로 보충할만한 여력이 없었다. 때문에 이라크를 지지하던 페르시아灣岸國들은, 한편으로 석유가격을 낮게 유지시킴으로써 이란을 財政적으로 공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OPEC産油割當중 이라크분은 포함시키지 않아 자유로운 增産을 도와주었다.

그런 결과로서 OPEC는 페灣國들과 이란과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동시에 이라크는 아웃사이드社 함으로써 회원국 협조를 저해하는 要因이 겹치게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休戰한 다음의 국면은 OPEC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休戰이 되고보니 이란에 대해 財政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울러 이란과 페灣國들과의 정치적 대립도 완화되었으므로, OPEC는 이제 結束力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견해가 휴전직후에 나왔다. 또한 OPEC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됨으로써 일시적 油價上昇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란과 페灣國들과의 관계는, 다시말해서 아랍·이슬람권에서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현상도 전쟁中止만으로 누그러질 수 없는 근본이 깊어서, 페灣國들의 增産체제(*低油價유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쟁관련 債務가 많고 전후복구를 해야하는 이란·이라크가 石油收入을 위한 增産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OPEC(*산유량조절)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有力視되고 있다.

• 중요한 이라크의 動向

현재 이란은 석유자원保存과 高價格확보를 주장하는 강경과정을 취한다. 또한 전쟁때문에 油田탐사가 부족하며 원유채취의 2차회수기술도 모자란다는 문제로 인해 증산의욕도 자금여력도 미미하다.

이에 비하여 이라크는 석유시설의 전쟁피해가 적으며 增産餘力도 쏠 있다. 증산의 애로점이었던 수송능력에 있어서도 89년 9월 완공의 IPSA-II (*사우디를 지나가는 두번째 送油管) 파이프라인이 대폭 증강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OPEC결속력은 이라크가 增産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라크가 OPEC 産油割當에 다시 포함되느냐(복귀하느냐) 그리고 이라크割當量을 이란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하느냐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割當制복귀여부는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지난 8월 OPEC사무국장이 이란·이라크 양국에게 똑같은 할당량의 복귀안을 교섭했으나 양국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먼저 받아들여졌다는 축이 그 表明後상황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는, 교섭자체의 결점도 있었지만 역시 양국의 복잡한 사정이 거부에 반영된 것이었다.

지난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린 OPEC의 장기전략위원회 및 가격동향감시위원회에서도 새로운 産油量協定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란측에는 휴전에 반발하는 국내국렬파가 있으며, 이라크에는 뿌리 깊은 産油擴大의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직접평화회담이 순조롭지 못한 점도 上記회의에 영향을 준 듯하다.

● 불투명한 앞날

현단계에서 보면, 이라크의 OPEC쿼타 복귀문제가 휴전으로 인해 요청압력을 받게 되기는 했으나 당사국은 오히려 이 增産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란·이라크 戰爭은 OPEC단결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었는 데 이제 그런 요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속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休戰'인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에서 그동안 가격 안정을 위한 産油量조절자였다. 사우디는 생산과잉문제를 비롯해 회원국간 의견충돌에 완충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도 심각성은 있다.

이라크의 쿼타內복귀 뿐만 아니라, 원유와 함께 분출되는 콘덴세이트(天然가스液=NGL)를 定義하는 문제(* 이제까지는 NGL을 생산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聯邦國의 할당량확대 문제등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II. 이란의 石油政策

이란은 이슬람혁명 전후를 통해 줄곧 OPEC내의 강경과 위치를 고수하여 왔다. 종전 팔레스트인 시대의 석유정책은 高價格指向·대량생산주의였다. 군비확장과 중화학공업 추진의 강력정책에서 석유수입은 아무래도 부족한 편이었으므로 1976년의 최고생산량은 668萬B/D를 기록하였다. 이런식의 생산정책으로 말미암아 석유자원保存이 미흡, 74년말 650億배럴이던 원유확인매장량이 78년에 590億배럴로 낮아졌다.

이를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자 혁명 후 高油價는 그대로 두면서 자원보전주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의 배경에는, 혁명으로 인해 산유능력이 700萬B/D에서 400萬B/D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과, 혁명전에 석유수입을 너무 낭비했다는 반성도 깔려있다.

1982년 2월 OPEC장기전략위원회(런던)에서 産油制限프로그램을 누구보다 먼저 제안한 것이 이란이었다. 더욱이 동년 9월 이·이戰 격화로 말미암아 이란은 전비조달이 긴급과제로 대두되자 OPEC 각국에게 減産을 호소하며 油價引上을 강력촉구하였다.

그때 이후로 이란石油政策에 기본적 변화는 없으며, 단지 강경과의 앞장에 서서 사우디등 온건파와의 OPEC 주도권 싸움에 진력하고 있다. 86년12월의 OPEC총회에서는 이·이戰에서의 이란 優勢 및 유가대폭락사태 때문에 이라크와 함께 步調를 맞추는 기미도 보였다. 그런 성과로 나타난 것이 총할당량감축이었으며 이에 따른 18\$/B 固定油價制 채택이었다.

그러나 87년 7월의 사우디內 메카사태를 계기로 사우디가 對이란정책을 硬化시켰다. 이어서 88년에 이·이戰의 이라크優勢가 분명해지자 사우디측의 OPEC內 반격이 강해지고 있다.

● 석유정책 결정기

이란석유정책의 결정기구는 사안중요도에 따라 ① 중장기 프로젝트 등 국회승인이 필요한 것 ② 물물교환계약 등 내각결정이 필요한 것 ③ 기타 모든것은 국영석유회사(NIOC)의 전관사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석유장관이 총재를 겸하고 있는 NIOC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된다. 여기서 首相과 國會가 석유장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으므로 NIOC독주를 막을 수 있다.

• 休戰後의 석유공급

지난 79년의 혁명 이후, 이·이戰 영향도 가중되어 이란에서는 석유탐사가 활발치 못했고 油田老朽化도 심해졌다. 원유확인매장량도 86년에 488億배럴로까지 낮아졌다. 87년말에 929億배럴로 다시 倍增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큰 유전이 새로 발견되었다는 구체사실이 분명치 못한만큼 신빙성 없는 정보이다.

그리고 전쟁중 석유시설 유지불충분도 지적될 뿐만 아니라, 혁명전에는 석유2차 회수(가스注入法) 기술을 국제석유메이저에게 의존하던 것이 혁명후 그들의 기술 협조 거부로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도 아울러 공급부족을 예상케 한다. 현 생산능력은 250萬B/D로 관측되며 시설복구가 진척된 1~2년후에도 한동안 유지가능한 산유능력은 300萬B/D를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최근동향을 보면, OPEC內에서 高價格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실제 석유시장에서는 할인판매도 한다. 또한 이란은 물물교환계약(바터去來)을 냉대했던만큼, 스팟市場(현물시장)에는 石油商品을 내놓지 않도록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은 그것도 할인판매의 일종으로 거래하는 모양이다. 결국 여러 판매방법을 동원하여 국제시장에서 되도록 큰 판매몹을 차지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향후 이란은 전쟁시에 감소된 정유능력과 산유시설을 복구하기에 힘쓸 것이다. 그들은 美·蘇 강대국에의 의존을 거부하면서, 對外借金이 없는 독립경제의 이슬람국으로 발전해가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석유정책을 운영할지, 석유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제전해낼지가 주목된다.

Ⅲ. 이라크의 석유정책

이·이戰 발발직전 1979년의 이라크 産油量은 348萬B/D, 석유수출은 331萬B/D이었다. 그러나 전쟁개시 직후 80년9월 호르·알·아마야 및 미나·알·바크르 그리고 포우島 등의 석유하역기지를 이란에게 공격당함으로써 페르시아灣을 통한 유조선의 원유수출이 中止되었다. 그래서 수출능력이 대폭축소됨에 따라 81년의 원유생산은 겨우 90萬B/D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82년 4월에는 시리아를 통하는 송유관이 봉쇄되어 석유수출은 터키經由 파이프라인 1개뿐으로 되었다. 이런 사정은 85년9월 사우디經由 송유관의 완성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는 바, 그동안 이라크로서는 시련기였다.

수출능력 감소에 수반하여 산유량 및 석유수입에서 이란과의 격차가 커지고 재정적자가 고통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이 「시련」을 계기로 석유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터키 및 사우디를 경유하는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87년7월에는 두번째 터키經由 송유관이 완공되고 요르단으로부터의 육상수송수출능력도 증가되어 산유량은 270萬B/D로 회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89년9월에 두번째 사우디經由 송유관이 완공되면 석유수출능력이 115萬B/D나 증대된다.

한편 이라크의 곤경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힘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전쟁시원原油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전쟁이 끝나면 역시 原油로 돌려받는다는 조건인데, 83년2월부터 양국에서 중립지대原油(×카프지) 12萬5千B/D씩을 공급받았으며 동시에 사우디로부터 A/L원유(輕質油) 6萬B/D를 받아 총 31萬B/D에 달했다. 이 원유제공은 3년간 계약이었으나 1년 연장되었고, 87년에 일단 계약만료(失効)된 후 88년부터 재계약되었다. 이제까지의 총제공량은 5億배럴이나 되지만, 그 상환방법이 아무것도 결정되어있지 않다.

• OPEC와의 관계

이라크의 석유정책은 두가지 방향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전쟁복구라는 특수환경에서의 정책이며 또 하나는 본질적·장기적 石油戰略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이라크가 전쟁개시 직후부터 격감한 수출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감에 따라 생산능력을 최대한 가동한다는 원칙이다. 석유장관은 현재 산유능력이 400萬B/D이며 수년내에 450萬B/D에 달한다고 본다. 지금은 수출능

력이 제한된 까닭에 산유량이 270萬B/D에 불과하지만, 89년에는 아마도 산유능력대로 최대한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OPEC과의 관계에서는, 86년총회시 사우디가 이란에 보조를 맞추어 산유쿼타를 재설정 할 때, 이라크는 그 내용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自國은 할당량배정에서 제외된다는 특례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시 전쟁에서 劣勢이던 이라크를 생산카스텔에서 빼주어 수입확대의 자유 생산을 도와주려는 페灣岸國들의 배려이었다.

그러했던 관계로 이제는(休戰後) 이라크를 산유쿼타에 복귀시킨다는 것이 난제로 된 것이다. 이라크는 조건만 좋으면 복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란이 이라크와 동일한 할당량 배정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OPEC화합이 어렵다.

더우기 이란과 동일한 250萬B/D로 쿼타를 설정하더라도 이라크 產油量은 89년후반에 대폭증대하므로 그때 또다시 자국할당량 확대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런점에서 OPEC단결을 향한, 油價高水準에의 지향은 이라크의 動向이 최대난관일 것이다.

• 長期石油戰略

이라크의 장기석유전략은, 석유매장량이 1,000億 배럴(88년1월) 가채년수가 131년으로 극히 큰 자원이므로 사우디 몇 페灣岸 온건파들의 입장과 같은 듯 하다. 즉 상대적 低價政策을 취함으로써 수요확보 및 OPEC판매 몫 유지를 목표로 삼아 초장기적 안정된 收入增大를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中東지역내 힘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라크는 페灣岸國들과의 제휴를 깊게 맺는다는 쪽이 타당하게 보인다.

IV.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란 · 이라크戰은 「석유전쟁」이라는 측면도 있다. 우선 서로의 석유시설과 탱커수송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 석유수급을 줄인다는 전략이므로 그러한 석유공급 차단으로 인해 세계 석유수급 균형이 이상해진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쟁후이가 이란 · 이라크 뿐만 아니라 인접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석유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들은 OPEC내의 리더격이므로 그 영향이 결국 OPEC 전체의 정책에 파급된다.

세번째로는 금년 8월 휴전이후 양국이 中期的으로 석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며, 그런 현상은 앞으로 세계석유시장에 역시 큰 영향을 줄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석유공급 줄어도 油價는 下落

한편 양국의 석유공급량 변화에 따른 직접영향은 開戰초기에 가장 현저해서 1979~81년간 세계 석유공급량이 400萬B/D나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輕質原油의 가격은 80년9월 시점에서 公示價格으로 30\$/B선 이던 것이 페灣岸國들의 增産으로 말미암아(일시상승후) 下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고 84년부터 이라크가 석유수송 탱커를 공격하여 이란의 석유수출이 불안하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油價의 장기적영향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다음, 87년여름에 美軍함정이 쿠웨이트輸送船을 호위하게 되자 페灣內 긴장도가 높아지고 원유시세도 미국산 WTI原油가 20\$/B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그 열마후의 시세는 곧 反落하였으며 그 시세가 그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OPEC석유정책에의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86년 12월 총회에서 강경파 이란과 온건파 사우디가 제휴하여 18\$/B 체제를 확립했다는 것이 상징적 實例이다. 그 배경에는 판매몫 확보를 목표로 한 OPEC각국의 석유증산이 油價폭락을 초래하므로써 각국 석유收入이 줄어들었다는 경제사정이 있다. 동시에 그때는 이란측의 군사적우세가 진행됨으로 인해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다는 정치적 이유도 있는 것이다.

그후, 이란과 사우디는 87년7월의 메카사건을 맞아 再對立한 다음 88년4월에 斷交하였다. 메카사건 이후 사우디는 低油價策을 취해 이란에 유리한 油價引上案(※ 非OPEC과의 협조로 減産하자)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이란石油收入을 休戰壓力로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단기 시장전망

금년 7월18일 이란이 유엔 휴전결의안을 수락했을 때 美 WTI原油는 84¢/B 정도 급등했으나, 그후 그러한 상승반응이 잘못으로 판단되었다.

이란 · 이라크의 평화교섭은 지지부진하고 이란과 사

우디와의 관계도 수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평화교섭을 촉진시키면서 이라크의 쿼타內 복귀도 촉구하기 위해 增産과 低油價格戰略을 再演出하고 있다. 때문에 원유가격은 U.A.E의 두바이原油가 두 달만에 배럴당 10달러정도나 떨어졌다.

OPEC회원국은 油價下落幅이 큰것을 장기간 참지는 못한다. 지금은 低油價가 지속되면 이란은 이라크와 동일한 쿼타 裁定을 거부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며, 이라크 또한 割當制복귀를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이미 베네수엘라와 가봉은 경제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알제리에서는 지난 2년간의 수입억제 긴축정책에 대한 국민불만이 폭동사건으로 폭발하였다. 이런 관계로 OPEC

회원국의 불만과 油價上昇을 바라는 소리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라크産油能力이 89년 가을부터 115萬B/D이나 증가하면, 이를 다른 산유국들이 이어받아 增産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89년 하반기의 석유수급은 당연히 넉넉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유명무실해진 OPEC 固定油價制=18\$/B선으로서의 복귀도 역시 곤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日本 中東經濟研究所 리포트에서〉

□ 산유국 동향 □

中東國家의 대외채무 및 자산현황

최근 發表된 國際決裁銀行(BIS)의 통계에 의하면 88년 상반기 중동산유국의 對西方銀行에 대한 임무와 자산현황은 이란·이라크의 경우 서방은행에 대한 資産보유액이 전년동기 대비 15~16% 감소하였으며, 사우

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增加하였다.

아란은 자산에서 임무는 뎀 순해외자산이 35억달러에 이르렀으나, 이라크는 순해외채무가 5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단위 : 백만달러)

	대 외 채 무		對西方銀行資料	
	1988. 6	1987. 12	1988. 6	1987. 12
바 레 인	15,455	16,517	22,073	24,317
레 바 논	1,994	1,869	8,496	7,990
알 제 리	13,462	14,568	1,356	1,916
이 란	1,422	1,453	4,948	5,861
이 라 크	7,485	8,136	1,593	2,328
쿠 웨 이 트	7,076	7,518	15,361	15,664
리 비 아	1,117	712	5,811	6,882
오 만	1,681	2,002	2,566	2,877
카 타 르	775	628	3,540	3,561
사우디아라비아	12,509	12,374	60,843	55,394
아랍에미리트	8,825	7,563	27,924	25,661
이 집 트	7,062	7,560	9,768	9,501
요 르 단	2,076	2,101	2,540	2,784
모 로 코	5,152	5,649	1,180	1,274
시 리 아	1,169	1,179	1,537	1,601